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8년 12월 16일(주일) 제1225호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 성도들이 성령충만을 간구하며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 ‘성령의 충만하심’ 간구
1월 19일까지 월~토 오전 5시 20분 각 캠퍼스 본당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가 시작됐다. 지난 12월 10일부터 2019년 1월 19일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 본당에서 오전 5시 20분에 진행된다. 해외비전교회에서는 CGNTV를 통해서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 동참하고 있다.

이번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는 성령님의 의미와 본질을 제대로 알고,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충만함을 사모하고 간구하고 있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지난해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 ‘성령세례(1)-약속하신 선물’, ‘성령세례(2)-생명 얻는 회개’, ‘성령세례(3)-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세례(4)-성령의

인치심’을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번 주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생명의 성령의 법’ 등을 주제로 말씀을 전할 예정이다. 12월 25일과 2019년 1월 1일에는 성탄예배와 신년예배로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가 대체된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는 요일별 중보기도도 하고 있다. 월요일 나라와 민족, 화요

일 차세대와 대학청년, 수요일 선교, 목요일 교회, 금요일 가정, 토요일 통일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다.

최지현 집사(S브릿지공동체)는 “성령 충만함을 늘 간구해 왔는데 이번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오금이 저릴 정도로 성령의 바람을 실감하고 있다”고 고백했고, 하성기 장로(노원공동체)는 “이번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를 기점으로 성령님께 예민하게 반응하는 삶으로 거듭날 것 같다”고 기대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다음 주 “메리 크리스마스”

칸타타, 콘서트 등 성탄 기념행사 풍성

다음 주일(23일) 예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예배를 드린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1~4부 예배에서는 주사랑 찬양사역팀, 양재 온누리교회 1~4부 예배에서는 주기쁨 찬양사역팀이 칸타타를 선보인다. 캠퍼스에서는 수원 1~4부, 남양주 1~2부, 평택 1~2부, 인천 3부, 강동 1~3부 예배에서 칸타타를 한다. 부전은 오후 7시 성탄축하예배를 드린다.

12월 25일에는 성탄축하예배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드린다. 성탄축하예배 크리스마스 콘서트에서는 올해 엔젤트리 사연을 듣고, 수준급 연주자들의 공연을 보면서 이웃 사랑과 예수 탄생을 기념하는 시간을 가진다.

성탄축하예배 크리스마스 콘서트는 서빙고 본당과 양재 사랑홀에서 오전 9시, 11시 30분,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서빙고 크리스마스 콘서트는 강석우 집사(배우)가 진행하고, 헬리스 트 송영훈, 모던클래식(비브라폰&색소폰), 소프라노 김영미와 제자들, 남성4중창 크룩스(CRUX), 교역자 특순이 이어진다. 양재 크리스마스 콘서트는 가수 이무송이 진행하고, 색소폰 연주자 대니정, 가수 노사연, 남성4중창 이니찌아, 교역자 특순을 선보인다.

캠퍼스에서도 성탄축하예배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드린다. 수원 오전 9시와 11시 30분, 대전 오전 9시와 11시 30분, 남양주 오전 11시 30



분, 평택 오전 11시 30분, 강동 오전 11시, 양지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부전은 오전 9시와 11시 30분, 인천 오전 10시 30분에 칸타타를 선보인다.

/ 정현주 기자

온누리 절약 캠페인 5

에너지를 아끼자

에너지 소비가 많아지는 계절이다. 전기와 가스 등 교회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절약하자.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꼭 필요한 만큼 쓰는 지혜가 필요하다. 사용하지 않는 공간은 소등하고, 난방 기구를 사용한 다음에는 전원을 반드시 꺼야 한다.

에너지를 절약하면 재정을 아낄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 효과도 있다.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는 18~20도를 유지하는 게 좋다. 방한용품 사용하고, 쓰지 않는 플러그는 뽑고, 불필요한 조명을 꼭 끄는 등 생활 속 작은 실천이 큰 열매를 맺게 한다.

People

만나고 싶었습니다

미디어 선교사를 만났다. 그 주인공은 SBS 간판 교양 프로그램 ‘생활의 달인’ PD 이상호 집사(OCC공동체)다. 이 집사는 방송계에서는 물론 교계와 봉사활동 분야에서 미디어 선교사로 통하는 인물이다. 열방에 복음과 함께 미디어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리는 것이 그의 사명이다. 또한 그는 미디어의 선한 영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유익한 방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집사의 아름다운 손은 봉사활동 분야에서도 빛나고 있다. 아이티 지진피해 지역, 교도소, 군부대, 청소년 시설 등지에서 봉사활동을 했고 지금도 이어나가고 있다. 방송계에서도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달 30일 열린 ‘자랑스러운 아시아 인물 대상’ 시상식 봉사부문에서 수상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미디어 선교사들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SBS 간판 교양 프로그램 ‘생활의 달인’ PD 이상호 집사



“기독교 문화를 담고 있는
모바일 플랫폼을
만들어서 기독교 문화를
확산시켜야 합니다.”

SBS PD라는 직함보다 미디어 선교사라고 불리는 게 좋다는 이상호 집사.

SBS 간판 교양 프로그램 ‘생활의 달인’은 수십 년 동안 한 분야에 종사하며 부단한 열정과 노력으로 달인의 경지에 오른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을 소개하는 방송이다. 교양 프로그램이지만 웬만한 예능 프로그램 못지 않은 높은 시청률을 자랑하고 있다. 무려 13년 동안 시청자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좋은 콘텐츠와 선한 영향력이 비결이다. 달인들의 삶에 담겨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와 감동적인 사연 그 자체가 주는 영향력이 탁월하다.

“저는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방송이 좋은 방송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의 달인처럼요. 우리 생활과 밀접한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달인들에게는 진한 감동이 배어있어요.”

**불신앙 미디어 종사자에서
기적의 미디어 선교사로!**

이상호 집사는 1992년부터 SBS에서 근무했다. 뺏속까지 방송인이다. 누구보다 미디어의 영향력을 잘 알고 있다. 무시무시한 부작용도 누구보다 잘 안다. 이 집사는 전 세계를 돌아 다니면서 선한 미디어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 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었다. 미디어에 대한 인식은 물론이고 세상 문화가 좋았다. 그러던 어느 날 뜻하지 않은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이상호 집사의 형님이 갑자기 큰 병에 걸렸다. 의사들은 하나 같이 가망이 없다고 했는데 형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교회를 찾았다. 그리고 기적같이 회복되었다.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던 이 집사가 큰 충격을 받았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병이 싹 나뉘더라고요. 신앙의 힘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집에 들렀는데 이번에는 어머니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본대로 어머니와 함께 기도했는데 더 이상 아프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때부터 믿음생활을 시작한 것 같아요.”

예수 믿고 인생이 달라졌다. 가치관이 통째로 변화되었다. 그때부터 일터를 선교지라고 여겼다. 일터사역을 비롯한 다양한 사역을 시작했다. 이 집사는 SBS 기독교인우회장, 한국기독언론인연합회 총무를 맡고 있고, 기독교 선교단체 ‘미디어군대’를 설립해서 군부대를 돌면서 선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도소와 청소년 보호시설도 찾아다니고 있다. 국내외 교회, 선교지에서 ‘미디어’와 ‘영적 전쟁’을 주제로 강의도 하고 있다.

미디어의 명(明)과 암(暗)

“미디어는 잘 쓰면 약이 되지만 못쓰면 독이 됩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제대로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누구나 미디어를 보잖아요. 아프리카 오지에 사는 사람들도 목에 휴대폰을 걸고 다니는 시대예요. 누구나 미디어를 사용하

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이 집사가 중동 지역을 방문했을 때 미디어의 선한 영향력이 무엇인지 알게 된 일이 있었다. 공항에서 이 집사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큰 친절을 받았기 때문이다.

“공항에서 캐리어를 부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 직원이 저에게 한국인이나면서 정말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 직원이 K-POP 팬이었어요. 당시 중동에서 K-POP이 크게 유행했거든요. 한국인 선교사님들도 K-POP이 유행하면서 사역이 한결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미디어를 활용한 선교가 왜 효과적인지를 알겠더라고요.”

복음이 담긴 미디어, 선한 영향력을 주는 미디어가 많아질수록 선교 효과가 배가 된다. 미디어 선교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미디어를 제대로 쓸 줄 알아야 한다. 또한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무시무시한 부작용을 알아야 한다. 미디어의 가장 큰 단점은 중독이다. 미디어 중독은 영육을 상하게 한다는 것이 이상호 집사의 지론이다.

“스마트폰 중독이 대표적이에요. 스마트폰은 매우 편리한 도구이기 때문에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사용하면 안 좋은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스마트폰은 영과 육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블루라이트, 전자파 때문에 수면의 질도 떨어뜨리고요. 눈과 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선정적인 동영상이나 자극적인 콘텐츠는 영을 병들게 하고요.”

특히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미디어 중독을 걱정했다. 이 집사는 게임에 중독된 아이들은 ‘리셋중후군’에 빠질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리셋중후군은 게임에서 지면 게임을 다시 시작하듯이 인생도 리셋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중후군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미디어의 악영향에서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을까?

당신이 바로 ‘미디어 선교사’

미디어 선교사 이상호 집사는 ‘미디어 박스’를 활용할 것을 적극 추천했다. 미디어 박스는 거실 같은 공용 공간에 바구니를 두고 온 가족의 스마트폰을 모아서 보관하는 것이다. 일터, 학교 등에서도 꼭 필요할 때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집에서는 스마트폰을 미디어 박스에 보관하면 된다.

“미디어 박스를 활용하면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게 되고 가족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미디어의 악한 영향력에서도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고요. 부모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는 스마트폰을 쓰지 말라고 하면서 정작 부모들은 TV로 자극적인 미디어를 시청하고 있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TV를 보고 싶을 때는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착한 미디어를 시청해야 합니다. CGNTV가 가장 착한 미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미디어는 세련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와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그런 프로그램을 기뻐하실지를 생각해보면 좋은 프로그램들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상호 집사가 추천하는 착한 미디어의 기준은 ‘남녀노소,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자극적인 영상이나 건강하지 않은 미디어에서 과감하게 눈을 돌리는 결단이 필요하다. 미디어 박스를 활용하고, 착한 미디어를 보는 것만으로도 미디어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호 집사는 세상에 선한 미디어가 더 많아지기 위해서는 크리스천들이 미디어 선교사로 적극 헌신해야 된다고 강조한다.

“헌신된 미디어 선교사들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기독교 문화를 담고 있는 모바일 플랫폼을 만들어서 기독교 문화를 확산시켜야 합니다. 차세대 미디어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송, 작가, 작곡, 출판, 음향, 영상, 편집, 안무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미디어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유월절 어린양 그리스도

출애굽기 12:1~14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와 능력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성탄의 신비 중 하나는 예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관념이나 상상속의 예언이 아니라 시간과 장소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역사 속에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해서 택하신 민족이며, 그 민족의 역사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고, 왜 오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출애굽 사건과 유월절 사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사건인 출애굽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정치적 혁명운동의 상징(모델)처럼 여겨졌습니다. 17세기 영국 왕실이 왕권신수설을 이용해서 절대 권력을 행사할 때 이에 대항한 올리버 크롬웰이라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출애굽 사건을 상징화해서 정치운동을 일으켰습니다. 1960~70년대 북미와 남미에서 정치적인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도 성경에 나타난 출애굽 사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사건이 왜 일어났으며,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면 정치적 운동의 근거로 살펴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 사건을 유월절 사건을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으로부터 벗어난 사건으로만 해석하는 잘못을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사건에 나타난 핵심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기적적인 역사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사람들이 의지를 모아서 어떤 이념적인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정치적인 변화를 목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한 출애굽을 통해서 이 세상의 악에 대해 심판하시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당시 애굽 왕 바로에게 준 경고가 배경입니다.

마지막 재앙에 대한 경고

“모세는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밤중에 내가 온 이집트에 다닐 것이다. 그러면 이집트의 처음 난 모든 것들, 곧 왕좌에 앉은 바로의 만아들로부터 밭에 있는 여종의 만아들까지 그리고 가축의 처음 난 모든 것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이집트 온

땅에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출 11:4~6).

하나님께서 악이 가득한 이집트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죽게 하시는 재앙을 예고하셨습니다. 이미 아홉 차례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지만 바로는 회개하지도 굴복하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애굽의 많은 신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마지막 재앙에 대한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그것은 애굽에 가득한 악에 대한 심판이요, 애굽이 섬기고 있는 헛된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이 내려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한 집에 한 마리, 일 년 된 숫양이나 숫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집의 양쪽 문틀과 위쪽에 바르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가 출애굽기 12장 12~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를 지나가며 사람들든 가축이든 처음 난 모든 것들을 치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너희 사는 집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이 표시가 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그냥 지나칠 것이다. 그러므로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너희를 멸망시키는 일이 없을 것이다”(12~13절).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 땅에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양과 염소의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그냥 지나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유월(逾越)’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냥 지나친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passover’입니다. 재앙이 그 집에 임하지 않고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 유월입니다. 이것은 바로를 굴복시킬 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죄와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죄와 악에 대해서는 철저히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처럼 모든 진노가 소멸될 때까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애굽에 내려지는 마지막 재앙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장자와 처음 난 짐승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입니다. 11장 5절을 보

면 “이집트의 처음 난 모든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집트라는 나라, 이집트 백성 가운데 처음 난 것이 아니라 이집트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표적을 둔 것이 아니라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동물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편袒으로 집어서 간저내신 것이 출애굽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남미 사람이든 간에 당시 이집트 지역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진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지역성이 중요합니다. 그 땅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일 년 된 숫양과 숫염소 둘 중 하나의 피를 문 옆과 위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그냥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다민족 구원사건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계획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닙니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려고 하니 너희들은 잘 듣고 절대 다른 이집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 민족만을 살리려고 하니 다른 민족에게 네가 아는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 사람이든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 심지어 바로도 이 약속을 믿고 따랐다면 구원의 길이 열렸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집트의 관료든, 군인이든, 정치적 지도자든 상관없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주어진 구원의 약속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은 모두 구원 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때 다른 종족들도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양 떼와 소 떼도 아주 많았습니다”(출 12:38).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민족만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 알리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살면서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을 알았을까요? 가까운 친구와 이웃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역개정에서는 ‘잡족’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다른 종족들도 많이 나왔다는 것이

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적인 사건이 아니라 많은 민족이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다민족 구원사건입니다. 혈통을 통한 구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피를 통한 구원사건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너희 사는 집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이 표시가 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그냥 지나칠 것이다. 그러므로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너희를 멸망시키는 일이 없을 것이다”(13절).

피를 바른 집은 어떤 민족이든 상관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차별과 구별 없이, 민족에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피를 바르도록 했을까요? 심판이 이미 그 집에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물의 피를 바르려면 한 생명이 죽어야 합니다. 그 한 생명이 죽었다는 것은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제단에서 속죄를 하는 용도로 주었던 것이 바로 피다. 이는 피가 생명을 대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상징인 피를 통해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식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피가 발라진 집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고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이미 심판이 임했다고 간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 간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피 뿌림을 받은 사람들은 마치 유월절 어린양의 피가 뿌려진 집을 유월하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유월되는 것입니다. 눈감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죄로 집행된 사건은 다시 집행하지 않듯이,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기에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심으로”라는 뜻입니다.

(13면에 계속)

기획 연말을 가장 행복하게 보내는 방법

연탄은 사랑! 쌀은 생명!

이웃과 함께 겨울나기 ... ‘사랑앓나눔’, ‘엔젤트리’, ‘1다락방 1사역’ 사랑 나눔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더 많은 기회 만들어야

한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새해를 보람차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바로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겨울을 나는 것이다. 연말은 일 년 중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가장 힘든 시기다. 왜냐하면 연탄 한 장이 아쉽고, 쌀 한톨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이다. 이 시기 소외된 이웃들에게 연탄은 사랑이고, 쌀은 생명이다. 우리가 이 추운 겨울을 간신히 버티고 있는 이웃들을 찾아가 연탄도 주고, 쌀도 나눠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전도까지 하면 정말 좋겠다. 이미 온누리교회에서는 ‘사랑앓나눔’, ‘엔젤트리’, ‘1다락방 1사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웃들을 섬기고 있다. 그 아름다운 일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나누면 나눌수록 사랑이 커지고, 모두가 행복해지기 때문이다.

/ 김영선 기자, 권찬송 기자



지난 8일 여호수아공동체 청년들이 쌀과 생필품을 사직동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했다.

함박눈 내리고, 반짝이는 크리스마스트리가 도시를 수놓는 연말이다. 이 시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지 행복한 고민에 빠진다. 마냥 행복하기만 할 것 같은 연말이 반갑지 않은 이들이 있다. 소외된 이웃들이다. 그들이라고 왜 연말에 기대가 없겠는가. 더 솔직하게 말하면 기대할 수조차 없다. 이 추위를 전기장판 한 장으로 버티고, 연탄 한 장이 아까워서 아끼고 아껴가며 뚝뚝 연탄보일러를 난방도로구로 사용하는 1인 가구가 겨울을 나려면 한 달 평균 연탄 150~200장이 필요하다. 그런데 연탄 값이 오르면서 연탄 기부가 뜸 끊겼다.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이 올해 연탄 300만 장을 확보하는 게 목표였는데 채우기 힘들 거라고 예측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연탄기부액이 40%나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불경기, 연탄 값 상승, 장애인에 의해 저질러진 끔찍한 범죄의 영향으로 기부문화가 주춤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요즘 쌀 걱정하는 사람이 있겠냐고 물을 수도 있는데 많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1층 로비에 있는 성미함을 2주에 1번씩 수거해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1년에 20kg 쌀 약 60여 포대가 이웃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쌀은 여전히 생명이다.

**나눌수록 사랑이 커지고
모두 함께 행복해진다**

사람들이 왜 사랑 나눔을 하고 있는지, 하지 않는다면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사랑 나눔을 독려하기 위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통계청이 2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기부 경향’ 설문조사(2017)에서 기부를 한 적이 있는지 물었더니 응답자 26.7%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우리나라 기부경향지는 2011년 36.4%를 기록한 이후 34.6%(2013년), 29.9%(2015년)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사람들이 기부를 하는 이유(2017 트렌트모니터)는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나누어야 할 것 같아서’가 52.6%로 가장 많다. 그 뒤는 ‘심리적인 만족감이 크기 때문에(50.3%)’,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할 수 있어서(38.8%)’ 등이다.

반대로 사람들이 기부를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2017 통계청)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가 57.3%로 가장 많고, ‘기부에 관심이 없어서(23.2%)’, ‘기부단체를 신뢰할 수 없어서(8.9%)’ 등의 순이었다.

사랑 나눔은 여유가 있어야 하고, 꼭 물질을 나누는 게 아닌데 나눔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아쉽다.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나서서 사랑 나눔에 대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몸소 보여주는 것이다. 몸소 보여주는 사랑 나눔은 대학청년부 ‘사랑앓나눔’ 행사가 좋은 사례이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11개 공동체는 매년

사랑앓나눔 행사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생필품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전하고 있다. 올해 사랑앓나눔 행사에는 대학청년부 11개 공동체 소속 청년 85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 13개 지역 쪽방촌, 복지관, 주민센터 등 910가구를 찾아가 쌀, 반찬, 라면, 세면도구 등을 전달했다.

김승수 목사(대학청년부 본부장)는 사랑앓나눔 행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성경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청년들이 이웃사랑을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현장에서 직접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앓나눔 행사의 목적이자 목표입니다.”

지난 8일 여호수아공동체 사랑앓나눔 행사에 동행했다. 그날 여호수아공동체 청년들은 사직동에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들을 찾아가 쌀과 복음을 전했다. 이른 아침부터 물품을 옮기는 청년들의 이마에 구슬땀이 맺혀있었다. 날씨가 꽤 추웠는데도 표정이 너무 밝았다. 청년들이 준비한 선물을 받고 좋아할 어르신들 생각에 추운지도 모르는 것 같았다. 사랑앓나눔 현장에서 만난 최강국 형제(여호수아공동체)도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걱정했는데 물건을 열심히 나르다보니가 몸에 열이 나더라고요, 저는 이 온기가 주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섬겨주는 지체들이 있어서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청년들의 사랑을 건네받은 독거어르신들이 함박웃음을 지었다. 송기환 어르신(77세, 가명)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쌀과 반찬, 세면도구, 라면 등을 지원받았다. 그 어르신께 쌀과 반찬은 곧 생명이다.

“청년들이 지원해준 쌀과 반찬 덕분에 올 겨울에는 굶을 걱정을 안해도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작년에도 청년들 덕분에 겨울을 잘 보낼 수 있었는데 올해도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렵게 번 돈으로 생활하고 있는 이명자 어르신(84세, 가명)에게 생필품만큼 좋은 선물은 없다. 이명자 어르신은 연로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일해서 번 돈으로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 호적에 자녀들이 있어서 기초수급자 명단에 들지 못해 정부보조금을 지원받

지 못하고 있다. 그 어르신에게 온누리교회 청년들이 나눠준 생필품은 이번 겨울을 견딜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명자 어르신은 청년들에게 너무 큰 사랑과 감동을 받았으면서 꼭 인사를 하고 싶다고 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사랑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손주들(청년들)이 전해준 따뜻한 사랑 덕분에 제 마음도 덩달아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몸도 마음도 따뜻한 겨울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앓나눔 행사에서는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소외된 이웃들을 위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도 함께하고 있다. 이은자 어르신(75세, 가명)은 청년들 만나서 정말 큰 위로를 받았다고 고백했다.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삶의 활력을 얻은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기도해줄 때 잃었던 마음의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사랑앓나눔 행사에서는 가가호호 방문해서 기도제목을 나누고 이웃들을 위한 중보기도도 하고 있다.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이웃들에게는 가까운 지역교회를 소개해준다.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 방법

소외된 이웃들에게 쌀과 연탄만큼이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관심과 사랑이다. 이웃들을 직접 찾아가 연탄과 쌀을 전해줄 사정이 안 된다면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에서 실시하고 있는 엔젤트리에 동참하는 것도 방법이다. 엔젤트리는 교회 안팎에서 위로하고 싶고, 예수님의 사랑이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정의 선물(5만 원 이하)을 전달하는 캠페인이다.

사회선교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1다락방 1사역’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연말 순모임을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하는 것도 좋다. 복지관, 미혼모센터,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쪽방촌, 노숙자, 미자립교회 등 교회와 성도들이 꼭 섬겨야 할 이웃들이 너무나도 많다. 지역 관공서에 문의하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연결해준다.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부에 문의해도 이웃들을 소개해준다.

문의: 02-3215-3434

기고

사랑 나눔은 ‘성육신적’ 사역



이기훈 목사
(사회선교 본부장)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구세군 자선냄비를 필두로 어려운 이웃을 섬기려는 행사가 교회 안과 밖에서 다양하게 열린다. 온누리교회에서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나눠주는 ‘엔젤트리’와 독거노인들

에게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는 청년부의 ‘사랑앓나눔’ 행사가 진행된다. 이러한 행사들은 어려운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매우 의미 있는 행사다. 이와 같은 행사들은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자로 살거나 혹은 가난한 자로 살도록 하지 않는다.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도록 섭리하셨다. 그 이유는 있는 자들이 부족하고 없는 자들을 섬기게 함으로써 세상이 조화롭게 운영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성탄절은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섬겨야 하는 당위성을 내포하고 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 “하나님은 왜 인간이 되는 모험을 감행하셨을까?”

이 두 질문의 답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답이 곧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죄인인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기 위해 오신 날이다. 다시 말하면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간 구원 프로젝트의 첫 단계가 시행되는 날이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의미 있게 지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실천해야 한다.

첫째, 성탄절을 기념하여 ‘사면령’을 내려야 한다. 빛진 자들에게 탄감을 선언해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기 위하여 오신 날이 성탄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도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 원수로 여기고 있는 사람,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등 그 대상이 부부, 가족, 직장 동료, 교우든 상관없이 용서를 선언해야 한다. 굳이 그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된다. 자신 안에서 사면령을 내리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야만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친밀해질 수 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성탄절은 의미가 없다. 사면령 없이 드러지는 성탄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을 것이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의가 사랑으로 표현된 최상의 퍼포먼스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도 의와 사랑이 실천되어야 한다. 성탄절을 선물을 주고받거나 근사한 디너파티에 참석하는 것으로만 여긴다면 진정한 의미로서의 성탄절을 지키는 거라고 말할 수 없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것은 자신을 어두



**나눔 없는 성탄절은 본래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선물 주고받는 것도 아름답지만
어려운 이웃에게 선물 나누는 것이 더 아름다운 일이다.
우리 주변에는 선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

운 방 안에 가두어 놓는 것과 같으며 동시에 인간을 용서해 주기 위해 성탄절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과 상치하는 것이다.

둘째는 사랑의 선물을 나누어야 한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다. 다른 의미로 표현하면 인간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것이다. 그 선물을 받은 자들에게 구원과 생명과 소망을 주셨다. 그래서 최고의 선물이다.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선물이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이 놀라운 선물을 받았다. 엄밀히 말하면 그 순간부터 사랑의 빛진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의미 있게 지키려면 누군가에게 사랑이 담긴 선물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 선물은 억지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보답으로서 주어야 한다. 나보다 부족한 환경이나 조건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즉, 외롭게 살고 있는 이주민 노동자, 독거노인, 고아나 과부, 노숙자나 쪽방촌 사람들, 어렵게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한국 생활에 적응하느라 고군분투하고 있는 탈북자 지체들, 교도소에서 살고 있는 지체들,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환우 등 주변에서 혼자 힘으로 살아가기 힘든 이웃들에게 사랑의 마음이 담긴 선물을 나눠줘야 한다. 빛진 자로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는 것이다.

**성탄의 의미 살리려면
손을 내밀어야 한다**

사랑의 나눔이 없이 지키는 성탄절은 본래의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들

끼리 선물을 주고받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선물을 나누는 것은 더 아름다운 일이다. 우리 주변에는 선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부른다. 성탄절은 성육신이 시행된 날이다. 성육신은 하나님이 일으킨 희생과 사랑으로 진행된 위대한 하나님의 사건이다. 또한 세상의 어떤 신도 흉내 낼 수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인 의와 사랑이 드러난 사건이다. 무슬림 중에 성육신 사건에 감동을 받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많다. 그들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과 인간을 대신해 죽으셨다는 사실에 감동받고 믿음을 갖게 되었다. 하나님은 인간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하늘로 올라와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으셨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지도 않으셨다. 만약 그렇게 요구하셨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은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아셨다. 그래서 당신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셨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을 찾아오신 날이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의미 있게 지키려면 섬길 자를 찾아가야 한다. 이것이 성육신의 의미를 살리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하나님은 죄로 단절된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다.

성탄절은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신 날이다. 성탄절의 의미를 살리려면 손을 내밀어야 한다. 삶의 무게에 눌려 어렵게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찾아

가서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

온누리교회가 3년째 시행하고 있는 ‘1다락방 1사역’은 성육신적 사역이다. 각 공동체가 속해 있는 지역의 개인이나 가정 혹은 기관이나 교회를 찾아가 먼저 관계를 맺고, 서로에게 신뢰가 쌓이면 필요를 채워주면서 지속적으로 동행하는 것이다. 그들을 교회로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있는 곳을 교회가 되게 한다는 점에서 성육신적이다. 어느 다락방은 작은 개척 교회와 관계를 맺고 매월 1회씩 찾아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교제를 나눈다. 소수의 인원으로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일상인데 이날만큼은 목회자는 물론 출석 교인들도 힘을 얻는다고 간증한다. 어떤 순은 본 교회에서 1부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개척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지원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섬김은 찾아가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성육신적 사역이다.

‘엔젤트리’ 행사는 성육신의 의미를 훨씬 더 살리는 사역이다. 엔젤트리의 첫 번째 단계는 사연을 접수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선물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 그들이 받고 싶어 하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파악한다. 여기에 성육신의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런데 선물 대상자를 찾아가는 일은 결코 용이하지 않다. 무엇보다 대상자를 찾아가 어렵고, 대상자를 찾았을 지라도 필요한 선물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하고,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두 번째 단계는 접수된 사연을 게시하여 선물을 보내줄 사람을 모집하는 것이다. 그동안 경험에 의하면 선물을 보내주는 사람보다 대상자를 찾는 일이 훨씬 어렵다. 그러나 대상자를 찾는 사람과 선물을 보내주는 사람의 아름다운 연합이 엔젤트리 행사를 풍성하게 해 준다. 행사가 끝난 이후 많은 사람들이 감사편지를 보내고 있다. 기대하지 않았던 선물을 받아 들고 기뻐하는 사람들의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다. 어떤 자매님은 받은 선물이 너무 감사해서 자신도 다음 해에 참여하고 싶다고 돈을 보내온 경우도 있다.

청년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사랑앓나눔’ 행사 역시 성육신의 의미를 잘 살려주는 사역이다. 금년 12월에도 전국 27개 도시에서 살고 있는 약 1,000여 가정을 찾아가 사랑을 나누다. 청년들이 찾아가는 대상은 다양하지만 독거노인들이 많다. 매년 찾아가는 노인들이 대부분이다. 이것은 먼저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사랑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독거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돈이나 물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이다. 청년들은 단순히 산타클로스 역할을 하지 않는다. 외롭게 살고 있는 그들의 이야기 벗이 되어 주는 것이 우선이다. 들어주고 또 들어주면서 그들의 외로움을 달래주기도 하고, 동시에 격려와 지지를 아끼지 않는다. 많은 노인들이 손자손녀 같은 청년들의 방문을 기다리는 것은 그만큼 영향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올해도 성육신의 의미가 듬뿍 담긴 성탄절이 되길 바란다.



온누리교회가 입양한 미전도종족.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누리 선교사의 고백 그리고 눈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잊지도 않으신다. 여기 온 누리 선교사들의 가슴 벅찬 고백과 눈물이 흐르고 있다. 선교지에서 세 번이나 쫓겨나고도 또 그들을 섬기고 있는 선교사와 본인이 잊어버린 15년 전 꿈과 비전을 이루게 된 선교사가 있다. 온누리교회 파송 최요셉 선교사(화성M센터)와 한젠슨, 한조니 선교사(중동 F국)가 그 주인공이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최요셉 선교사(화성M센터)는 청년 시절 중앙아시아 선교에 헌신했다. 그 땅에서 만난 중앙아시아 사람들을 너무 사랑했다. 그들을 복음으로 품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배신이었다. 그것도 세 번씩이나. 선교현장에서 세 번이나 쫓겨났다. 잔인한 학살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는 정말 하나님도 싫고 교회도 싫었다. 중앙아시아 사람들은 볼 것도 보기 싫었다. 그랬던 그가 지금 경기도 화성에서 또다시 중앙아시아 사람들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인연은 정말 질겨요. 저는 중앙아시아 Z국에서 선교를 했어요. 온누리교회가 입양한 미전도종족인 중앙아시아 Z국을 마음에 품었거든요. 그들을 알고 싶어서 중앙아시아 Z국 국립대학에서 민속학을 공부하면서 3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한 게 제 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중앙아시아 Z국에서 민속학을 공부하면서 중앙아시아 사람들을 이해하게 됐고, 3년 동안 그들과 부대껴 살면서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다. 이슬람이라면 일단 믿고, 나쁘게 보는 편견과 오해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

“그들과 보낸 시간이 정말 재미있고 즐거웠어요. 중앙아시아 사람들을 전도하고, 섬기고, 그들과 교제할수록 더 많이 사랑하게 됐어요. 중앙아시아 Z국에 지하교회를 섬기고, 성경공부 교재를 번역하는 사역을 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두 번의 추방과 도망

먼 타국에서 선교사로 사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행복했다. 중앙아시아 Z국 교회에서 만난 현지인 아내와 가정도 꾸렸다. 이제 조금 행복해지려나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비밀경찰들에게 체포됐다. 손쓸 틈도 없이 추방 당했다.

“지하교회에서 교제하던 새신자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냐’고 묻더라고요. 그렇다고 했더니 비밀경찰이 와서 저를 체포하고 추방시켰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다. 한국으로 돌아와 선교사 훈련 스태프로 섬기면서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렸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중앙아시아 Z국 옆에 있는 중앙아시아 K국으로 다시 떠났다. 중앙아시아 K국에서는 중앙아시아 K국 사람들과 더불어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Z국 사람들을 섬겼다. 그곳에서 자리를 잡아가갈 즈음 또 한 번 체포당하고 추방을 당했다. 이번에는 중앙아시아 Z국에 있는 처갓집을 방문했다가 이웃의 신고로 또 다시 비밀경찰에게 붙잡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요셉 선교사는 또 다시 중앙아시아 K국으로 떠났다. 그리고 절체절명의 위기와 직면하게 됐다.

중앙아시아 K국에서 인종갈등이 발생했다. 그 갈등이 심화되는가 싶더니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이 됐다. 중앙아시아 K국 사람들이 중앙아시아 Z국 사람들을 학살하기 시작했다. 최명헌 선교사의 아내가 위협에 처했다. 중앙아시아 K국을 서둘러 떠날 수밖에 없었다.

정말 미웠지만 그래도 사랑하기에

“정말 그때는 하나님도 밉고, 교회도 밉고,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밉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2~3년 흘렀는데 다시 중앙아시아 Z국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집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중앙아시아 Z국에서 온 형제가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 중앙아시아 Z국 형제는 날마다 편의점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가족들과 통화를 하고 있었다. 최 선교사는 그 형제와 교제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용인시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Z국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그들에게 “어디에 중앙아시아 Z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냐”고 물었더니 경기도 화성이라고 대답했다. 때마침 안산M센터에서 화성M센터 개척을 준비하고 있었다. 최요셉 선교사는 화성M센터 오픈 멤버로 섬기겠다고 자처했다. 정말 미웠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그곳에 있기 때

문이었다.

“화성 발안만세시장에 가봤더니 중앙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들을 위한 식당이 5개나 있을 정도로요. 저처럼 중앙아시아 K국에서 학살을 피해 나온 사람들도 있어서 그들을 섬기면서 회복시키고 있어요. 서로 미워했던 중앙아시아 K국 사람들과 중앙아시아 Z국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교제도 해요. 하나님의 선교는 시간과 장소, 인종을 초월하거든요.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는 꼭 복음을 함께 들고 갔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5년 전 고백마저도

한젠슨, 한조니 선교사는 내년 초 중동 F국 선교사 파송을 앞두고 있다. 그들은 그곳에서 현지인 교회의 선교를 돕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민족예배를 개척할 예정이다. 15년 전 신학생 시절 하나님께 고백했던 ‘중동 선교’와 ‘다민족예배’라는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될 것이다. 두근거림과 설렘으로 빨리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한때는 중동 선교와 다민족예배라는 꿈과 비전을 잊어버리고 산 적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꿈과 비전을 잊지 않으셨다. 그리고 이루셨다.

한젠슨, 한조니 선교사 부부는 미국교포이다. 한젠슨 선교사는 40세 늦은 나이에 신학공부를 시작했다. 그가 신학공부를 하면서 내벨은 첫 번째 고백이 바로 다민족예배였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곳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계 7:9).

이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은 한젠슨 선교사는 다민족예배를 섬기고 싶다는 비전을 세우고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유독 중동에서 온 사람들에게 정이 갔다. 그래서 중동 사람들을 위한 예배를 개척하고자 한인교회에서 사임을 했는데 그 이후 일들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

“새벽기도 때마다 다민족예배에 대한 꿈과 비전이 선명해지더니 나중에는 중동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이주해서 그들을 위한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강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잘 하던 사역을 내려두고 중동 사람들을 위한 교회 개척을 준비했는데 무슬림과 이슬람에 대해 전혀 아는 게 없었어요. 중동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강의를 갔다가 그곳에서 만난 사람을 통해서 중국인 2세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역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젠슨, 한조니 선교사 부부는 중동 선교와 다민족예배와 조금 거리가 먼 목회를 하게 됐다. 중국인 2세 사역을 마치고는 캄보디아로 단기선교를 갔다. 인도네시아 장기선교사로 헌신하기 위해 온누리교회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았다. 국내에서 사역하면서 파송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중동 F국으로 가게 될지는 상상도 못했어요. 온누리교회에서 10여 년 동안 중동 F국에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중동 F국으로 가겠냐고 제안하시더라고요. 그때 중동 선교와 다민족예배에 대한 꿈과 비전이 다시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중동 F국 선교를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선교사 부부는 올해 봄 중동 F국 정탐을 다녀왔다.

“중동은 선교지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부가 살 수 있는 곳이라고 여기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중동 F국에서 머무는 시간 동안 현지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광경들이 낯설지 않고, 길거리에서 현지인들에게 다가가 말을 건네고 싶을 정도로 친근감이 샘솟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를 통해 그 고백과 비전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기간 중에 최요셉 선교사, 한젠슨, 한조니 선교사 외에도 더 많은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들의 간증을 담은 <간증집>이 배포될 예정이다.

기고

그리스도의 오심은 ‘영광과 평화’의 복음이다

성도는 여호와의 영광 찬양하고, 평화의 축복 누리야

아기 예수가 나신 크리스마스만큼 뜻 깊은 날이 또 있을까? 교회와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날을 기억하고, 축하하고, 축복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날이기 때문이다. 황재명 목사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두 번째 글을 보내왔다. 이 글을 읽으며 크리스마스의 참 의미를 되새기고,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크리스마스를 기다렸으면 좋겠다. 이 글은 3회 연재한다.

/ 편집자 주



황재명 목사
(강서공동체)

2천 년 전 하늘의 천사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다윗의 후손 아기 예수가 장차 이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 되심을 선언하면서 모두 한목소리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

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양했다(눅 2:14). 이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될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할 것을 예언한 것이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지극히 높은 하늘 보좌에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그러나 세상은 이 당연한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우상숭배와 세속화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망각하며 살아왔다. 설사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하여도 세상적 바벨탑의 영광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렸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 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롬 1:23).

왜 사람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걸까? 우상숭배는 바울이 로마서 1장 21절에 언급했듯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치도 않음으로써 초래된 타락의 산물이다.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림으로 생각이 허망하고 미련해진 사람들, 특히 영적 감각이 무뎠진 사람들은 결국 우상숭배에 몰입할 수밖에 없다.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우상은 인간이 만들어 낸 허상이며, 그 우상숭배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인간의 생각과 가치관을 삶의 기준과 척도로 삼는 인본주의로부터 비롯된다. 그러므로 우상은 인간을 타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타락한 인간의 산물인 것이다.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 스스로가 올라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그 타락과 완악함이 관영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 썩어질 사람과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이 세상에 선포하며 바로잡기 위해 오셨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적 우상을 좇아 죽음의 어두운 골짜기

로 내딛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것이다.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라면 반드시 품어야 할 비전이 있다. 다름 아닌 하박국 선지자가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의 총만함이다.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야니라”(합 2:14).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총만한 하나님의 영광, 모든 피조물들이 한목소리로 송축하는 하나님의 영광 바로 이 모습이 원래 정상적인 모습 이었고, 우리가 창조된 목적도 바로 이 성경적 모습 속에 내포되어 있다(사 43:7).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 “모든 육체는 온 세상에 가득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었

으며”(사 40:5), 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요 17:4~5), 부활(벧전 1:21), 재림(눅 21:27)을 통해 온전히 실현될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다. 이 세상 종말에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온전히 완성될 것이다. 그러나 그 완성되어감 속에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다. 비록 성도는 종말에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 속에 거하게 되지만, 지금 이미 변화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으며 그 과정을 통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되는 것이다(고후 3:18). 성도가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는 것은 영광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도가 삶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 가면 결국 그리스도가 찬송 받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다(벧전 2:12). 그러므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고전 10:31).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 하나님의 평화가 동력이 되는 날, 그리스도의 복음이 삶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렘 37:26~27).

평화의 언약 그리고 축복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총만함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한 천사들은 다음으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소리

들을 통해 약속해 오셨다(사 54:10, 겔 34:25, 37:26~27, 말 2:5). 특히 에스겔 3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평화의 축복이 하나님의 임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렘 37:26~27).

하나님이 선포한 평화의 축복은 구약 당시에만 효력 있는 유한한 언약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언약이다. 그 언약의 영원성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임재로 인해 보증, 배서(背書, 책장이나 어떤 문서의 뒷면에 글씨를 씌워)되고 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즉, 성령의 임재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이 되는 것이다.

성도들이 경험하며 고백하는 하나님의 평화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평화는 단순히 인간 내면의 평온한 감정적 상태나 정치, 사회적 안정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의 화목을 의미한다(롬 5:1~2, 고후 5:18~20). 특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룬 평화에 대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골 1:20)고 증거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이며, 이 샬롬은 오직 믿는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회복 즉, 화목(reconciliation)의 축복인 것이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롬 8:15)며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보다 실질적,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바울은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을 ‘입양’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그 입양의 은혜를 통해 주어지는 화목 관계가 바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임을 강조하고 있다(갈 4:6). 하나님은 우리를 입양하시어 화목 된 가정을 만들어 가길 원하신다. 입양을 통해 우리를 자녀삼아 주심에 기뻐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평화의 본질인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평화가 주어질 수 없다(사 48:22, 57:21).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함을 분명하게 선포하셨다(요 20:21~22). 하나님의 평화는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영적 축복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루어진 평화는 성도들의 삶속에 성령의 열매로 맺어질 것이며(사 32:17), 동시에 그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의 궁극적인 응답이 될 것이다(벧 4:6~7).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날, 그 날에 선포된 복음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고후 4:4)이자 동시에 ‘평화의 복음’(행 10:36)이라 증거하고 있다. 모든 성도들은 그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사 43:7, 21), 더 나아가 복음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평화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 2천 년 전 천사들이 선포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의 중심(뒀)이 되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인생의 동력(뒀)이 되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삶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작은 예수
40일새벽기도회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

◆ 12월 10일 월요일

보혜사 성령

요 14:16~20, 요 16:7~11

이재훈 목사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모두 이와 같다”(요 3:8).

바람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와서 예측할 수 없는 곳으로 갑니다. 바람은 우리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우리 마음대로 조종하고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성령님의 주권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람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바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람 소리를 듣고 체험하듯이 성령

님의 실재를 느끼고, 듣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앞날이 성령님에 의해서 어떻게 쓰임 받을지 알지 못합니다. 성령의 바람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믿음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고백한 것에서 머무르면 부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세상의 죄에 빠져 타락하고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

리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이끌림과 성령의 바람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지혜로워지고, 거룩해지고,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소개하실 때 ‘보혜사’라고 하셨습니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인데 늘 곁에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번역으로 위로자, 상담자, 한자로는 保惠師(보혜사)인데 늘 곁에 있어서 보호해주시고, 은혜를 베풀도록 부르심을 받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요 14:18)고 하셨습니다. ‘다시 오겠다’는 말은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으로 다시 오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오실 목적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본질이 아닌

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본질인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유익하다고 했다는 점입니다(요 16:7). 왜냐하면 예수님의 떠남으로 인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예수님이 역사함과 동시에 지구 반대편에서는 또 다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오심의 유익함이 바로 이것입니다. 육신의 예수님은 물리적 제한이 있었지만, 성령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기에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임할 수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 무지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을 믿고, 체험하고,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님의 부어주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바람처럼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 12월 11일 화요일

진리의 성령

요 14:17, 요 16:12~16

이재훈 목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십니다(요 16:13).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모든 신비한 영에 속한 일들을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입니다.

그분은 영이시기에 우리의 육체를 뛰어넘어 영에 침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과 개성은 그대로 두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만을 몰아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의 영이 죽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어둡고, 어둠은 거짓입니다.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이성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의심하고, 논리를 따져서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입니다. 인간은 이성의 한계를 모릅니다. 어둠속에 있는 이성은 거짓에 속한 것입니다. 태초의 아담과 하와는 거짓에 무너졌습니다. 사단의 거짓을 받아들임으로 거짓된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 임하시면 어두웠던 내 안에 빛이 비취고, 내 안에 거짓이 가득 차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진리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고, 한계를 알게 됩니다. 양심을 속이고,

이성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짓말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인간의 이성은 진리에 대해 대답을 못 합니다. 오직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임할 때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거룩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의 영이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전 2:14).

육과 혼에 속한 사람, 정신만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믿지 마십시오. 정신으로 판단하는 것이 최고의 영역에 있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각종 베스트셀러, 노벨문학상 수상작 등을 다 읽어봐도 정신의 세계일뿐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려주는 것은 오직 성경

입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거짓을 분별하게 해주시고, 진리를 분별하게 하십니다.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지혜롭게 되고, 분별력을 갖게 되고, 때로는 앞일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영적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빛을 비취 주시지 않으면 어둠 속에 있는 인간의 영은 절대로 진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육체가 변화되고, 지성이 깨지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영의 사람이 되도록 간구한다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임하기를 바랍니다.

◆ 12월 12일 수요일

성령세례(1) 약속하신 선물

행 1:4~8, 행 2:1~6

이재훈 목사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행 1:4-5).

‘며칠’ 후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또 다른 중요한 절기인 ‘오순절’을 말합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절기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계절적 의미로는 보리추수 절정에 이르는 시기이고, 역사적 의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

애굽 하고 50일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율법이 주어진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언적 미래를 알려주는 절기입니다.

이 시점의 제자들은 예수 믿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요 17:8).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의심, 두려움, 불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것을 아셨습니다. 약속하신 선물인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심령이 강건해지고, 능력과 확신을 얻게 되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놀라워하는 제자들을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약속하신 선물, 곧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지만 능력 없는 제자들에게 능력이 임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약속을 따라 오신다는 것은 우리의 성취와 노력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성령님의 오심은 이미 약속된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에게 선물인 것처럼,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인 것처럼, 오순절에 오실 성령님도 약속을 따라 오시는 선물임을 받아들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처럼 성령님의 오심도 믿음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혹에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새벽에 함께 모였을 때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심으로 그들에게 분명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능력이 일어나고, 죽음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확신이 생기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분명하고도 체험적인 사건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 받는 사건이었습니다.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성령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세례와 같이 우리가 함께 모여 약속하신 선물인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며 능력 있는 성도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삶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령님은 약속하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사모하면 성령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 체험을 함께 누리려는 40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 12월 13일 목요일

성령세례(2) 생명 얻는 회개

행 2:32~39, 행 11:13~18

이재훈 목사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말씀의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이성을 최고의 기관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인간의 이성은 거짓에 속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이성은 죄를 합리화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이성을 무시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성을 뛰어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성과 육체를 지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디엘 무디, 요한 웨슬리, 에이든 토저 등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

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도 기도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오순절에 임한 성령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교회의 본질과 기독교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역사적 사실로만 인식됩니다.

오순절 사건은 구약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순절 사건은 십자가에 못 박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성령세례를 주신 사건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성령세례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지만 성령의

능력은 오늘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 하는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오순절에서 일어난 사건과 동일한 형태와 외형은 아니지만 시대와 환경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성령세례의 목적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참된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인간의 죄인 된 상태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여기는 것을 방해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지혜로 고백하지만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깊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

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회개를 단순히 율법적 명령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정신, 교양, 문화의식을 이용하는 뉘우침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도 반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뉘우침은 근본적으로 영적 존재로 남아 있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오늘 뉘우쳐도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회개는 자신의 존재자체에 대한 부정입니다. 내 자신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회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스스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성령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 삶에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 12월 14일 금요일

성령세례(3)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행 19:1~10

이재훈 목사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영 안에 임재하실 때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몸이 떨리고, 감정이 뜨거워지고,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은 죄악이 우리를 떠나갈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놀랍게도 성령은 우리의 영과 충돌되지 않고 하나로 연합합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의 속성이 충돌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성도들이 교회와 한 몸이 되는 역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

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한 몸 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은 다양한 패턴으로 성령님을 체험했습니다. 세례의식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더욱 다양해집니다. 세례 이후 성령세례를 받기도 하고, 먼저 성령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동시에 성령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지금도 교회 세례식에서 나타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모습은 규정을 지을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님이 임하시고 충만함으로 부어질 때 본인이 인지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셨고, 나를 사로잡으셨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만일 성령세례가 임했다면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주인이 되십니다. 더 나아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는 이 두 가지 일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영적 경험을 확인합니다. 제자들은 아볼로를 통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았습니다. 바울의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2절 a)라는 질문은 정치와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세상을 이길 약속된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험하지 못했다고 이러한 영적 체험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성령이 있다는 사실도 듣지 못했습니다”(2절 b).

성령세례를 통해 우리는 온전한 성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오심을 인정하고 충

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 앞의 존재를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관계가 형성됩니다. 환영하고 기뻐하고 만나기를 원하면 그 대상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세례가 임한 후에 바울은 제자들에게 2년 이상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가 순환되어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아볼로가 말씀을 증거했을 때는 체험하지 못한 것을 바울의 성령사역을 통해 체험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일어났습니다. 강제로 시켰다면 2년 동안 공부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지적 만족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깊은 사모함, 깊은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은혜 속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하나 됨을 통해 성결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기도하십시오.



“세상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CEO”

CCF 전도집회 ‘The 멋진 당신’ 개최

CCF(Christian CEO Forum)가 기업인과 크리스천 CEO들을 초청해서 교제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CCF 전도집회 ‘The 멋진 당신’이 지난 9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 그랜드볼룸홀에서 막 올랐다. 이번 CCF 전도집회 The 멋진 당신의 주제는 ‘바른 성공’이었다. 이날 집회에는 창업자, CEO, CCF 멤버 등 각계각층 리더 610명이 참석했다.

개그우먼 정선희의 사회로 시작한 CCF 전도집회 The 멋진 당신은 이남식 장로(CCF 회장)의 인사말, 저녁만찬, 대니정(색소폰 연주자)과 백지영(가수)의 공연, 이재훈 담임 목사 메시지, 김홍국 회장(하림) 간증,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야말로 진정 의미 있고 성공한 삶”이라며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함으로써 세상과 사회를 변화시



The 멋진 당신 집회 참석자들이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다.

키는 CEO가 되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나효승 자매는 “사회 선배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들으면서 인생을 배운 것 같다”고 했고, 송상호 형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리더로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생각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인카네이션문화예술재단 창립예배

제1회 예술상 및 예술장학금 수여식도

인카네이션문화예술재단 창립예배를 지난 8일(토) 서빙고 온누리교회 순형홀에서 드렸다. 재단법인 인카네이션문화예술재단은 창의적 예술작품을 통해 이 시대 문화를 어둠에서 빛으로 선도해 나가기 위해 설립됐다. 역량 있는 작가들을 발굴 및 지원하고, 전시·교육·기부 등의 활동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문화선교사역이 비전이다.

인카네이션문화예술재단 창립예배는 박시형 목사의 사회, 김영환

장로(OCC공동체)의 기도, 이재훈 담임목사의 말씀, 박종길 목사의 축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이재훈 담임목사는 “세상이 보면 가장 어리석은 선택으로 보이지만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예수님의 성육신(인카네이션)”이라며 “문화예술 영역에서 성육신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카네이션재단이 되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창립예배를 드린 후에는 ‘제1회 인카네이션문화예술재단 예술상

및 예술장학금 수여식’도 거행했다. 예술상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높은 작품성과 열의를 갖고 있는 만 30세 이상 작가 5명(강리나, 김영제, 서인혜, 한경원, 허수영)에게, 예술장학금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예술가의 꿈을 갖고 노력하고 있는 전도유망한 미술학도 6명(김승규, 박서영, 윤현준, 김정은, 오윤화, 허지혜)에게 수여했다.

강리나 작가는 “거룩한 상을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빛을 밝히는 작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양지, 인터넷 중독 예방 강의

오늘(16일) 오후 2시 스크랜튼홀

오늘(16일) 오후 2시 양지 온누리교회 스크랜튼홀에서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시대의 자녀 교육’을 주제로 인터넷 중독 예방 강의를 개최된다. 이번 강의는 차세대 교사나 부

모들에게 인터넷 중독의 심각성과 인터넷 중독 예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는 배우미 소장(마음사랑 아동청소년 상담센터)이다.

양재 세례사역팀원 모집

세례 교육 및 세례 예식 봉사

양재 온누리교회 세례사역팀원을 모집한다. 세례사역팀은 세례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세례 교육을 실시하고, 매월 마지막 주에 실시되는 세

례 예식을 섬기는 사역팀이다. 봉사시간은 매주 주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다. 문의: 02-570-7311

은퇴장로, 권사(1948년생), 안수집사(1948년생) 명단

장로	강기석 송영태 최진성	김광동 심재욱 한규중	김기호 심창구 허형석	김성묵 안태환	노홍규 이우곤	문창국 전구영	박상송 전장하	상병선 천영무
----	-------------------	-------------------	-------------------	------------	------------	------------	------------	------------

권사	공동체	권사	공동체	권사	공동체
구정녀 김길자 김순옥 김승희 김영애 김영희 김옥숙 김정심 김현옥 김희숙 김희정 문경화 문윤자 박계순 박인숙	수원 남누리 중종로 강동 말씀 관악금천 성북 서빙고 분당B 분당B 마포 서초B 수원 동누리 고양은평 양지 동누리 이촌 신용산	방충애 백순이 손지화 송기현 신명식 신현미 양정열 양현숙 여경자 엄정순 유승희 유영자 윤정순 이강재 이경순	양천 성동광진 한강 양천 중종로 강남A 평택 신용산 중국어예배 봉화 양천 서초B 한강 마포 강촌	이금순 이순희 이정화 이향우 정경희 정순자 정혜인 조춘옥 차정순 최선주 최정순 한동욱 홍민자 홍정옥	중종로 성북 수원 북누리 신용산 마포 분당A 일산 가정사역 분당B 강남A 일분어예배 강남B 수원 남누리 용산

안수집사	공동체	안수집사	공동체	안수집사	공동체
곽노훈 김기택 김만기 김성남 김세진 김영민 김영우 김진수 김형석 도대식 문병대 박명희 박병임 박영상 박정희 박종익 박찬구	관악금천 서초C 서초B 가정사역 서초A 신용산 동작 부천 소망 찬양사역 수원 동누리 이촌 서초C 강남A 영등포구로 용산 마포 OCC	박형배 배석례 서정임 송기환 윤용균 이경우 이남규 이남진 이동진 이명희 이세한 이용우 이재균 이정권 이정용 이창호 임승무	서초A 이수 서빙고 강남C 고양은평 송파 여의도 양천 동작 성북 서초C 동작 분당B 경기A 강남A 김포 마포	정효상 조순희 최남용 최영희 최철진 최현석 추옥선 하현택 한두진 한영수 한정희 홍만희 홍순분 홍창기 황재욱	일산 남양주C 강남C 중종로 이촌 분당B 중종로 서초B 한강 한강 서초B 양재 서초B 노원

감사와 소망의 열린음악회

강남C공동체,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묵상

강남C공동체가 지난 12월 8일 저녁 7시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감사와 소망의 열린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음악회는 강남C공동체 지체들이 다 함께 모여 한 해 동안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감사와 소망의 열린음악회에서는 피아니스트 이지원, 비올라 연주자 임하람, 마림바(타악기의 일종) 연

주자 김미연, 강남C공동체 남성중창단, 바이올리니스트 김수연, 바이올리니스트 정요한, 피아니스트 김예나 등이 무대에 올랐다.

이정자 권사(강남C공동체)는 “강남C공동체가 준비한 아름다운 음악회에서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 권찬송 기자 kcs123@onnuri.org

2018 로그온 ICT포럼 ‘START UP’

12월 22일 오후 1시 서빙고 두란노홀

2018 로그온 ICT포럼 ‘START UP’이 12월 22일 오후 1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개최된다. IT기술을 활용한 선교전략을 나누는 자리다.

로그온 ICT포럼에서는 박종길 목사(온누리교회) 말씀, 이용경 장로(CGNTV 대표), 박종오 대표(리틀송), 길아라 성도(전 숭실대 교수), 권도우 성도(온누리 로그온 스타트업 팀), 이준호 집사(온누리교회 IT



전략위원회), 이경희 집사(온누리교회 온라인 콘텐츠 & SNS 팀) 등 IT전문가

들의 강연이 이어진다.

참가신청은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https://goo.gl/forms/c7mSWUqbU2Nb9yyV2>

문의: 02-3215-3651

CGNTV 세라핌 어린이합창단 음악회

27일 19시 30분 밀알학교

CGNTV 세라핌 어린이합창단이 음악회 ‘하쿠나 마타타(Hakuna Matata)’를 개최한다. 오는 12월 27일 저녁 7시 30분 밀알학교 세라믹팔레스홀(서울시 강남구 일원로 90)에서 막 오른다. CGNTV 세라핌 어린이합창단 음악회 하쿠나 마타타는 온누리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음악을 좋아하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다. 문의: 02-6014-5680

전도학교 수료 간증



/ 이수정 성도(중종로공동체)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요 10:27-28).

하나님은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내 안에도 부여졌다. 하지만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 막막함과 답답함이 항상 내 안에 있었다. 복음을 거부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예수를 믿기 전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럴 때면 과거의 모습이 떠올라 부끄러움과 민망함에 잠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머뭇거리게 됐다.

오랫동안 미국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돌아와 보니 의외로 믿지 않는 사람,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는 걸 알게 됐다. 그러던 중에 ‘전도학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허락하실 것을 기대하며 전도학교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과 목사님의 열정에 큰 감동을 받았다. 그들은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에 대한 간절한 마음

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그분들을 통해 전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다.

전도 전문과 강의를 통해서 내 마음과 입에서만 맴돌던 복음이 담대하게 쏟아져 나왔다.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훈련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거리 전도를 나가서 한 영혼에 대한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복음을 전하고 있다. 거리 전도는 주로 섬김과 양육을 염두에 두고 진행됐던 이전 전도방법과는 다르다. 짧은 시간 안에 전도 대상자에게 5분 전도문을 전하며, 영접기도를 하고,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한다. 나는 많은 사람들의 거절을 경험하면서 언젠가는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며 돌아섰다.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많은 영혼을 향해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잘 전달하고 싶지만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다. 그래도 매 순간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관악금천공동체 1다락방 1사역 간증



/ 김봉석 집사(관악금천공동체)

진정한 이웃사랑

관악금천공동체는 지난주 수요일(5일) ‘우리들학교’에서 1다락방 1사역을 실시했다. 관악금천공동체는 다락방별로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탈북자 아이들에게 식사봉사를 하고 있다. 봉사를 마친 뒤 교장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다.

교장선생님은 대학생 때부터 탈북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부방을 운영하셨다고 한다. 이 땅에서 가장 소외된 이웃인 탈북자들을 섬기는 것을 평생의 사명으로 여기면서 이 학교를 운영해 오셨다. 그 열정으로 인해 우리들학교는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과거에 비해 많은 수의 학생들이 함께 하게 됐다. 연령도 10대부터 30대까지 다양하다. 지금은 약 50여 명의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다.

봉사하시는 12명의 선생님들은 모두 자원해서 섬기고 계신다. 아무런 지원 없이 탈북자 아이들을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묵묵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수업은 주로 기술자격증과 관련된 수업들이다. 선생님들은 그들이 사회에 나가서 당당하게 자신의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사랑과 격려를 주고 있다. 학생들은 선생님들의 사랑

을 통해서 학업에 더욱 열심히 매진하고 있다. 그분들의 열정을 보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과연 나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어주고 있는지,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이웃과 얼마나 나누고 있는지를 살펴봤다.

우리들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중국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건너왔다. 그들 대부분은 탈북자 어머니와 중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한국말을 잘하지 못한다. 한국말을 못하다 보니 어려움을 겪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편견으로 상처 받는 학생들도 많다. 많은 사람들이 탈북자들을 색안경을 쓰고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들을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심지어는 무시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이러한 편견이 깨져야 한다. 교장 선생님과 봉사자 선생님들은 편견들과 맞서 싸우고 있다. 우리 사회에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훨씬 더 건강해질 것이다. 짧은 시간 동안 교장 선생님과 나는 대화를 통해서 진정한 이웃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다.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간증



/ 추명희 총무(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3년 전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에 처음 참석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대학청년들을 향한 열정을 부여주셨다. 내가 그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 늘 고민했다. 그러던 중에 온누리신문을 읽다가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을 알게 됐다.

온누리교회에는 11개 대학청년부 공동체가 있다.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에서는 매월 첫째 주에 11개 공동체의 기도제목을 받고 있다. 기도제목이 다양하다. 아웃리치, 청년들의 영적인 성장, 홀리스타, 예배, 크리스마스 행사, 대학청년부 목사님들의 가정 등이 있다. 대학청년부 목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 한 분씩 돌아가면서 기도모임에 방문해 주신다. 목사님들과 함께 젊은 세대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세대로 구별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 요즘은 사랑애포니움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우리 청년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서 나눔의 기쁨을 배우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선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에서

우리가 드린 기도가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얼마 전에는 한 목사님의 자녀가 심하게 아팠다. 우리가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청년들과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임에 참여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놀라운 회복이 일어났다. 항상 안색과 표정이 어두웠던 성도님이 함께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얼굴이 환해지고 입가에 웃음이 넘치는 것을 봤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이었다.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에는 우리 교인이 아닌 분들도 참석해서 청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서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기를 바란다. 이 기도모임에 참석하면서 내 자녀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가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청년들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길 소망한다.

문의: 010-8000-4792

헬로맘 출산 후 스쿨 복콘서트 간증



/ 이향주 총무(헬로맘 출산후 스쿨)

부부, 사랑을 배우다

지난 12월 1일 양재 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부부, 사랑을 배우다’를 주제로 헬로맘 출산후 스쿨 복콘서트가 개최됐다. 이번 복콘서트는 초보 부모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강사는 이요셉 작가와 강내우 교수님이었다. 강사님들은 부부관계와 입양에 관한 내용을 나눠주셨다. 첫 번째 순서로 강내우 교수님의 입양 이야기를 영상으로 접하고 아이 넷을 사랑으로 입양한 이야기를 들었다. 아이 한 명, 한 명이 교수님의 가정으로 오는 과정들을 목상하면서 입양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됐다.

교수님이 입양한 아이들 중에는 죽음을 생각하던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는 입양된 가정이 천국이라고 고백했다고 한다.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는 입양은 선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입양이 한 영혼을 온전히 품고 그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두 번째 순서는 이요셉 작가님이 <사랑을 배우다>(토기장이)를 소개하면서 부부가 어떻게 대화를 지혜롭게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셨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을 주님 안에서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셨다.

모든 강의를 마친 뒤에는 Q&A 시간이 이어졌다. 참여하신 많은 분들이 입양과 부부관계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면서 각자 궁금했던 점을 질문했다. 시간이 많지 않아 많은 질문을 할 순 없었지만 유익한 시간이었다.

나는 이번 복콘서트를 통해서 부부관계에서 사랑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서로 차이가 크고 대화의 방식이 다르더라도 부부는 서로를 끝까지 사랑해야 한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부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참석한 초보 부모들은 지금이 갈등이 가장 큰 시기이며 엄마와 아빠로서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겪고 있는 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어렵게 시간을 내어 이번 복콘서트에 참석했다. 이번 복콘서트가 가족의 사랑을 되새기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 참석했던 모든 분들이 행복한 부모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한다.

장로칼럼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박공 장로
(신웅산공동체)

크리스천은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지를 늘 점검해야 한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 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섬긴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지만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산다. 왜 그런 것일까? 사역 장로가 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 알게 되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내려지지 않아서이다. 또한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소중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아닌 여전히 자신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링컨>(생명 의말씀사)을 읽고 우리가 왜 주님의 편에 서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알게 됐다.

1862년 9월 17일 앤티텀 전투에서 처음으로 북군이 승리를 거두자 링컨이 부대를 방문하여 병사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면서 사기를 북돋아줬다. 그때 옆에 있던 한 참모가 링컨에게 이런 말을 했다.

“각하 이제부터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북군의 편입니다.”

그 말에 링컨은 이렇게 대답했다.

“오직 나의 염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일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기만 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오신 다윗을 통해서 내게 그 사실을 알려 주셨다네.”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 섰다. 그가 골리앗 앞에 선 것은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 아니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해 점령당할 것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때문도 아니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에 대한 의로운 분노 때문이었다. 다윗이 의분으로 던진 돌팔매가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게 됐다. 링컨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큰 교훈을 얻었다. 더 이상 전쟁에서 지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았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훨씬 중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링컨은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늘 점검하며 기도했다. 하나님은 그런 링컨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링컨의 일화를 통해서 깨닫게 됐다. 링컨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보다 전쟁에 이기는 것에 집착했다면 결코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을 것이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편에 설 수 없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것은 개인의 영성을 기르는 훈련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교회와 가정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격려해줘야 한다. 서로를 격려해줄 때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다. 결국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나 자신의 편에 서 있는가? 우리 자신이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끊임없이 살펴보는 겸손함이 필요하다.

권사칼럼

하반기 종강을 맞아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라며
상반기 개강할 때가 어제 같았는데
벌써 한 해를 보내는 마음은 아쉬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 고령의 자리에 서게 됨도 하나님 은혜요,
세밀하게 보살펴주시는 덕입니다
그러나 우린 어찌 이렇게 태산의 끝자락까지 와 섰음을
누구의 탓이나 된 것처럼 투덜거렸습니다
그러나 우린 회원님의 한결같은 마음으로
서로가 정이 오가며 위로의 말 한마디 스치기만 해도
훈훈한 느낌이 따뜻했습니다
이정환 목사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주심에 감사하오며
백승웅 장로님을 비롯 여러 장로님께서
행여나 한 분 한 분이 실수로 넘어질까
보살피는 모습에 감동이 됐지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이젠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당돌하게 나아가겠습니다
회원님의 훈훈한 마음이 더욱
용광로의 불꽃처럼 빛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린 비록 행동으로 눈빛으로 정겹게 통하였지만
이 시간은 서로가 손을 잡고 다음 새 희망의 해를
건강한 모습으로 맞이할 것을 약속하며 헤어질 겁니다.

이 시는 지난 12월 5일 종강한 양재 시니어아카데미에서 최옥희 권사가
한지에 한 글자 한 글자 감사와 애정을 담아 붓글씨로 쓴 소감이다.



최옥희 권사
(양재공동체)

신앙에세이



다니엘박 목사
(영어예배)

나는 부모님의 사업 때문에 어릴 때부터 말레이시아와 호주에서 생활했다. 부모님은 매우 신실한 크리스천이셨다. 나는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다. 특히 찬양사역에 대한 열정이 많았다. 대학교 2학년 때는 교회에서 찬양인도자로 헌신했다.

찬양인도자는 찬양을 부르기 전에 곡을 선별한다. 그리고 찬양이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충분히 연습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은혜로 찬양을 준비하면 멋진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찬양인도자로 교회에서 봉사하는 동안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셨다. 나는 찬양 인도를 봉사로만 생각하지 않고 전문적으로 섬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서 전문 찬양사역자가 되기 위해 찬양사역자를 양성하는 학교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인들은 전문 찬양사역자가 되는 것도 좋지만 목회를 준비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했다. 찬양사역만큼이나 말씀을 전하는 일도 중요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역자로 부르셨다는 확신이 없었다. 그래서 사역자가 되는 것을 망설이고 있었다.

졸업이 가까워지자 진로 문제로 마음이 많이 복잡해졌다. 친구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뚜렷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친구들을 보면서 나 자신에게 화가 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서 영어학원을 준비하

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한국에서 영어학원을 시작하는 데 선생님이로 함께 일해 줄 수 있냐고 물었다. 나는 그 연락을 받고 곧바로 한국으로 갔다.

나는 기도를 하면서 내가 한국에 온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하나님이 한국에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가 됐다. 한국 생활에 익숙해질 무렵 지인으로부터 온누리교회 영어예배를 소개받았다. 나는 온누리교회 영어예배에서 매주 드리는 뜨거운 예배와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찬양사역에 대한 열정을 더욱 키워갔다.

얼마 후 나는 핏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에 들어갔다. 핏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훌륭한 교수님들로부터 많은 지도와 가르침을 받았다. 또 함께 공부하던 자매와 결혼해서 사랑스러운 아이도 갖게 됐다. 세월이 흘러 지금은 온누리교회 영어예배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있다. 영어예배에서 찬양을 인도하면서 그전에 알지 못했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있다. 요즘 들어서 영어예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롭게 깨닫고 있다.

영어예배는 선교공동체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는 순간 그가 중국인이건, 일본인이건 영어가 공용어가 된다.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영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어예배에는 영어권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권의 외국인들이 오고 있다. 영어예배 스태프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한국인들도 영어예배에 함께 하고 있다.

나는 찬양을 인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매순간 은혜를 구하고 있다. 그들이 뜨겁게 올려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영어예배가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공동체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유월절 어린양 그리스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증언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린양 대속사건을 이루는 양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 유월절을 제정하시면서 유월절 양을 표시하는 관사를 보면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유월절에 희생된 수많은 양들을 말씀하실 때 계속 단수를 사용하셨습니다. 한 번도 복수를 사용하지 않았습니 다. 12장 3절을 보면 “어린 양 한 마리”라고 했습니다. 4절에서는 “바로 그 어린 양”이라고 했고, 5절에서는 “너희의 어린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한 마리 양과 같습니다. 한 분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 그분의 죽음이 온 세상을 향하여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지를 보여줄 때는 ‘어린양 대속사건을 이루는 양’이 되십니다.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들의 양이 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도 유월절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한 사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삭을 드리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질문했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딴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번제로 쓸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

다.” 예언적인 대답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고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덤불에 숫양 한 마리가 걸려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 자기 아들 대신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 이삭을 대신하여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제물로 바쳐질 뻔 하다가 중단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순종에 감동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할 때 장면이 중단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 다. 양이 이삭을 대신하여 드려졌습니다. 하나님은 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이삭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진 것이고, 우리가 심판된 것이고,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으로 간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출애굽 당시 이집트로 돌아가서 두 집을 상상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피를 발랐습니다. 한 집은 피를 발라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평안 가운데 잠을 잤습니 다. 그런데 또 한 집은 옆집보다 피를 더 많이 발라놓고도 불안해서 잠을 못 잤습니 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양쪽 다 살았습니다. 잠만 못 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삶과 불

신의 삶입니다. 구원의 약속은 우리 믿음의 강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란 내가 강하게 믿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라볼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나의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나의 믿음의 강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확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합니다. 심판의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는 끝난 절기이지만 영적 유월절로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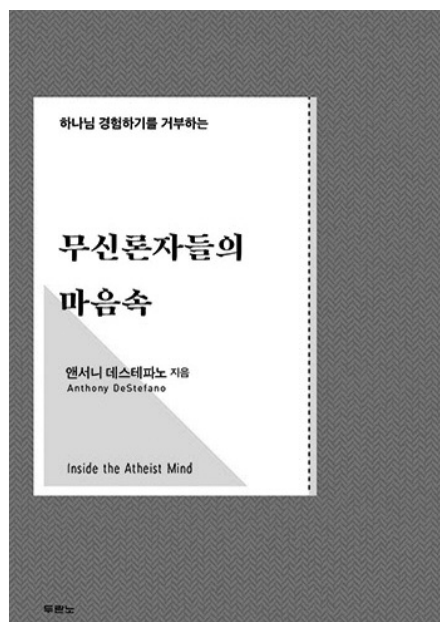
이 땅의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며, 맞이하며, 기뻐하며, 그분의 축복을 나누는 성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두란노 신간

무신론자들의 교만을 비판하다



〈무신론자들의 마음속〉
앤서니 데스테파노 저 | 두란노 | 1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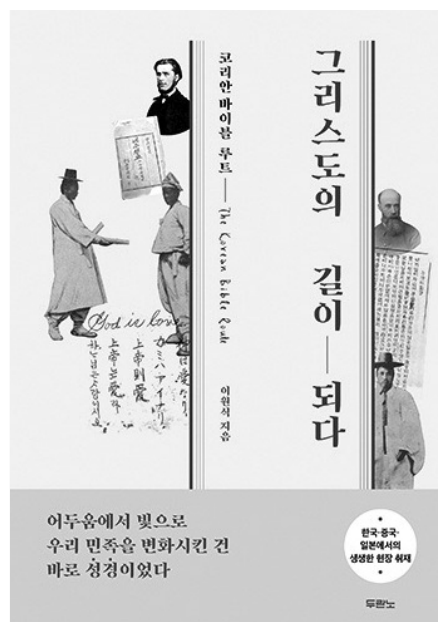
난해도,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이 제정되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욕구를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을 없애려는 것과 똑같기 때문이다.

많은 무신론자들이 기독교를 조롱하거나 경멸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인간에게 무가치하고 무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며 산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늘 공허하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앤서니 데스테파노는 〈무신론자들의 마음속〉에서 무신론자들의 이러한 교만한 태도를 지적하고 있다.

“나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거나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합당한 이유를 대는 것이 아니다. 그런 책이라면 이미 시중에 얼마든지 나와 있다. 이 책에서 나의 주된 목적은 무신론자들의 지독한 위선과 기만, 무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무신론자들이 기독교를 대적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무신론적인 책이 많이 출판되어도, 무신론자 유명 인사들이 교회를 비



〈그리스도의 길이 되다〉
이원식 저 | 두란노 | 14,000원

론’, ‘통일과 회복 그리고 유라시아를 향해’로 되어 있다.

이 책을 통해서 한국 선교의 역사와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한글성경의 루트

과연 언제부터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이 땅에 들어왔을까?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는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조선에 들어왔다. 그들이 조선에 정착한 이후 성경을 번역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조선에 들어온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조선에 들어오기 전부터 조선에는 또 다른 버전의 한글성경이 있었다는 것이다. 2천 년 복음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 놀라운 한글성경의 루트가 〈그리스도의 길이 되다〉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

이 책의 구성은 ‘기적의 시작’, ‘조선과 청의 국경 고려문을 통해 성경이 전해지다’, ‘예비하신 주의 일꾼, 의주 상인’, ‘한글성경을 위한 불씨, 존 로스와 토마스’, ‘한글성경 번역의 태동, 잉커우’, ‘우리말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다른 버전의 한글성경’, ‘말씀이 되다’, ‘부흥’, ‘성경책 한 권을 들고 선교를 떠나다’, ‘한국과 네팔 T부족의 평행이

14 온누리신문			
서빙고 O2. 793. 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비전을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을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을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권용갑 목사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532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신상국 부대표(010-7933-5422)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범식 팀장(010-5225-1519)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문화 미디어 홍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진현 팀장(010-8567-1808)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성철 집사(010-3660-7135)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पाल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금요일 하노이 시티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 / 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페르시아어 주일 14:30 선교관 208호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파갈루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4:00 Peace 301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향 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1:00 2F Library / 다문화 예꿈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형 주일 14:00 4층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크스탄어 주일 14:00 1F StarTree / 파키스탄어 주일 13:00 Peace 305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7762-7718) 캄보디아어 주일 11:00 양곡 플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곡 플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예배 주일 9:00 301호 / 네팔어 주일 9:00 3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몽골어 주일 11:30 평화 Love Hall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 7:3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 8:00 JDS홀 문의: 02-792-7075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추명희 집사(010-8000-4792) 군 선교와 군인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웅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양재 O2. 570. 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재폴실) Jesus Rock 5세~초등1(총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총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총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청년부) 갈렘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5467-9878,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조현영 팀장(010-3328-6366) *환우중보심방전도 요청 받음 양재 살림기도회 일정 안내 대상: 나라와 통일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성도 매주 월 오후 7시 30분 양재 JDS홀 문의: 김정용 총무(010-5339-4522) 대청여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 10~12시 반 경찬홀 문의: 김은지(010-3285-1726)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시간: 매주 목 오전 10:30 장소: 본관 B3층 JDS홀 스페인어예배 매주일 14: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부천 O32. 322. 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7:00/2부 오전 9:00/3부 오전 11:30/4부 오후 2:00/5부 오후 4:00(대청예배)/6부 오후 7:00(부흥예배) 새벽기도 월~토 오전 5:20 분당 차세대 예배 영아부-오전 9:00, 11:30 / 유치부-오전 9:00, 11:30, 14:00 유년부-오전 9:00, 11:30 / 초등1부-오전 9:00 초등2부-오전 11:30 / 유초등부-오후 2:00 중등부-오전 9:00, 11:30 / 고등부-오전 9:00,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매주 오후 7:30 한사랑예배(탈북민) 매주 오후 2:00 3층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매주 오전 11:30 3층 꿈아이홀 어린이영어예배(JEM) 오전 9:00 기쁨홀 중국어예배 매주 오후 2:00 두란노홀		수원 O31.895.6500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 4부 오후 2:00 / 5부 오후 7:00 대학청년(주일) 대학부 오후 2시(경찬홀) / 청년부 오후 3시(민음홀) 새벽예배 월~토 오전 5:20(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온누리워십 매주 수 오후 7:40 차세대 주일예배 영아부 오전 9시, 11:30 드림홀 / 유아부 오전 9시, 11:30 조이홀 / 유치부 오전 9:00, 11:30 소망홀 유년부 오전 9:00(초1~3), 11:30(초1~2) 사랑홀 초등부 오전 9:00(초4~6), 11:30(초3~4) 경찬홀 소년부 오전 11:30(초5~6) 믿음홀 중등부 오전 9시 비전홀 / 고등부 오전 9시 믿음홀 차세대 영어예배 오전 11:30 비전홀	
대전 O42.825.3642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분당 / 2부 오전 11:30 분당 젊은예배 오후 2시 30분 분당 대학부 오후 2시 30분 누리홀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분당 토요새벽기도회▶ 매주 토 오전 6:0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00 분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분당 차세대주일예배 예꿈(36개월~7세) 오전 09:00 꿈땅(초1~초6) 오전 09:00 영아부 오전 11:30 유치부 오전 11:30 유년부 오전 11:30 소년부 오전 11:30 초등부 오전 11:30 중등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9:00		남양주 O31.56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 2부 오전 11:30 분당 3부 오후 2:00 분당 / 4부(청년) 오후 4:00 분당 [다문화] 주일 11:00 / 4층 온유홀 주중예배 힌디어 토요일 19:00 5층 믿음홀 / 네팔어 토요일 19:00 5층 소망홀 / 새벽예배(월~토) 오전 5:20 3층 분당 /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분당 / 수요목양예배 오후 7:30 3층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오전 11:30 2층 예꿈홀 유치부 오전 9:00 2층 예꿈홀 유년부 오전 9:00 2층 꿈땅홀 초등부 오전 11:30 2층 꿈땅홀 중등부 주일 오전 11:30 기쁨홀 고등부 주일 오전 9:00 기쁨홀	
평택 O31.651.9680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2부 오전 11:30 분당 3부 오후 2:00 분당(대학청년) 주중예배 및 모임 화요기도모임 화요일 오전 10:00 비전을 수요오전여성예배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여성예배 수 오후 7:30 분당 차세대예배 예수님의꿈아이 오전 11:30 본관2층 꿈이자라는땅 오전 9:00 본관2층 파워웨이브 오전 11:30 파워웨이브교육관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20 분당 외국어예배 몽골어 예배 11:30 평택M센터 Love Hall 인도네시아어예배 11:00 인도네시아 헬터		인천 O32.437.9686 ※예배장소 및 시간에 대한 문의는 목회지원실(032-437-9686)로 연락바랍니다. 주일예배장소 12월 성인/차세대/사랑부예배 12/29,25: 송도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송도동 162-1) 12/16,23,30: 송도 컨벤시아(송도동 6-1) [중·고등부 예배] 제너섬 7층(송도동 179-1) [대학청년부·국제예배] 제너섬 7층(송도동 179-1) 주중예배 수요여성/수요저녁/새벽예배 제너섬 7층(송도동 179-1) 주일예배 성인예배 9시/11:25/오후2시 차세대예배 영아/유치/유년/초등/중등/사랑부 11:20 꿈땅1부/고등부 9:00 해브리카즈 오후2시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2시 몽골어예배 오후 2시	
강동 O2.47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 2부 오전 11:30 분당 3부(프라미스청년) 오후 2:00 분당 프라미스U대학부 오후 2:00 사랑홀 차세대예배(주일) 예수님의꿈아이(영아부) 오전 11:30 기쁨홀 예수님의꿈아이(유치부) 오전 11:30 두란노홀 꿈이자라는땅(유년부) 오전 11:30 드림홀 꿈이자라는땅(초등부) 오전 11:30 사랑홀 파워웨이브 오전 9:00 두란노홀 사랑부 오전 9:00 사랑홀 주중예배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20 분당 수요오전예배 오전 10:30 분당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분당		양지 O31.331.8171 주일 성인예배 1부 예배 / 9:00 / 2층 김사무엘홀(분당) 2부 예배 / 11:00 / 2층 김사무엘홀(분당) 3부 두드림예배 / 14:00 / 지하1층 박모세를(대청) 주일 차세대예배 드림씨드(영아) / 11:00 / 2층 드림씨드홀(분당 영상 중계예배) 예수님의 꿈아이(유아) / 11:00 / 지하1층 무어홀 예수님의 꿈아이(유치) / 11:00 / 지하1층 위더스홀 꿈이 자라는 땅(유년) / 11:00 / 2층 아멘젤러홀 꿈이 자라는 땅(초등) / 11:00 / 2층 스크랜턴홀 파워웨이브(중·고등) / 11:00 / 지하1층 박모세를 주중예배 새벽예배(월~토) / 5:20 / 1층 시안홀	

성탄의 기쁨, CGNTV와 함께 누리세요

2018 CGNTV 성탄특집 프로그램

<칩 잉그램의 성탄 메시지>



21일 (금) 밤 11시 50분

칩 잉그램 목사를 통해 듣는
성탄의 의미와 기쁨의 이유

성탄특집영화 <예수는 역사다>



23일 (일) 밤 11시

진실을 외면했던 기자가 끝내
부정할 수 없었던 예수 부활의 증거

성탄특집영화 <일사각오>



22일 (토) 밤 11시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신앙의 선배, 주기철 목사의 삶과 복음

성탄특집드라마 <나에게 오신 예수>



24일 (월) 밤 10시 40분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의 부모로서
마주해야 했던 두렵고 떨리는 은혜의 이야기

2019년 CGNTV 말씀달력을 판매합니다.

CGNTV 말씀달력과 함께
2019년을 말씀으로 시작하세요.

판매처: 두란노서점 (서빙고양재)
문의: 02-796-2243 (CGNTV 후원기획실)



*판매 수익금 전액은 CGNTV 미디어 사역에 사용됩니다.